

AI 끝이 보인다

화순·장흥·여수 이동제한 해제
담·오리 농가 금명 재입식키로

한 달만 동안 전남 전역을 휩쓸며 수백만마리의 오리과 닭을 땅에 묻게 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전남 일부지역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제한조치가 AI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제된 것이다.

전남도는 21일 화순·장흥·여수지역 담·오리 농장 등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AI 경계지역(3~10km) 내 모든 담·오리 사

육농가를 대상으로 항원·항체검사를 통해 AI바이러스 잔존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덕분이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500m~10km 위험·경계지역 농가는 곧바로 재입식에 들어갈 수 있어 화순·장흥·여수지역의 담·오리 농장에서는 조만간 재입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I가 발생했던 농가도 별도 분변검사와 3주간의 입식시험을 거친 뒤 정밀검사 후 재입식을 할 수 있고, AI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오염지역

농가에서는 AI발생농장 입식 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다.

나주와 영암지역의 경우 3~10km 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혈청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AI가 가장 늦게 발생했던 보성(1월24일)의 경우 마지막 매몰 처분이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만큼 이동제한조치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전남도는 110곳의 AI 발생농가가 집중된 나주·영암지역의 이동제한이

풀리면 전남 AI 종식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 발생지역이었던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조치가 내려지면 사실상 AI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AI 의심신고 등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경기 등 타지역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며 "AI가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축사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교복 물려받으세요”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사무소 직원들이 21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8개 동에서 수거한 승정중·광산중·정광중 등의 교복 1500여 벌을 정리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 교복을 2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사무소를 찾은 중학 신입생들에게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업 수명’ 전남이 가장 길다

광주·전남지역 신규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70%대였고, 50% 안팎은 3년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을 열거나 닫은 업체의 절반은 자영업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차지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1일 발표한 ‘2004~2009년 사업체 생멸(생성·소멸)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신규 사업체 생존율은 ▲1년차 72.61% ▲2년차 57.13% ▲3년차 46.9% ▲4년차 39.52%였다. 신규 사업체 10개 중 3개가 창업 후 1년 내에 문을 닫고, 4년이 지난 뒤에는 10개 중 6개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전남지역은 ▲1년차 77.98% ▲2년차 63.90% ▲3년차 54.62% ▲4년차 47.48%로 나타났다. 16개 광역단체

중 신규업체 생존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1년 72.63%, 2년 56.47%, 3년 46.42%, 4년 39.19%)보다 크게 웃돌았다.

조사 기간 중 지역간 사업체 이동에서도 광주는 유입(74개)보다 유출(106개)이 많은 반면 전남은 유출(79개)보다 유입(99개)이 많았다.

한편, 조사기간 중 신설된 전국 사

업체는 연평균 59만5336개였으며, 휴·폐업한 곳은 57만7501개로 연평균 117만2837개가 생겨나거나 문을 닫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알림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봄으로의 질주 일주일 남았습니다

- 일시: 3월1일(화) 08:30~16:00 (폴코스 출발 09:00)
- 장소: 광주월드컵경기장*남평교
- 종목: 폴코스, 하프코스, 5km
- 주최: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광주생활체육회, 전남생활체육회
-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 협찬: KJB, 광주은행, KB금융그룹,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신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 KYOBO교보생명, 전남대학교병원,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신대학교병원, 2011광주불꽃축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참고 바랍니다

“광주·전남 저축은행 안전합니다”

정상영업 6곳 경영지표 내세워 예금주 안심시키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막연한 불안감에 흔들려 손실을 초래하지 말고 경영지표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갈 겁니다.”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파로 고객들이 예금을 빼가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자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이 고객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자 우량저축은행들은 창구에 경영지표를 게시하는 등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역 저축은행들은 ▲고객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호받는다 것과 ▲예금인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안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 중도해지시 이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A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의 지표가 되고 있는 BIS 비율을 창구에 공개해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11.11%로 경영이 안정된 우량저축은행이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통 때보다 예금 인출이 조금 늘었지만 일부는 되레 저축은행의 감정한 고금리를 활용해 예금에 나신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B저축은행은 “단순 예금 인출도 있지만 중도해약이 보통 때보다 늘었는데 이는 고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영지표를 공개해 고객들에게 우량저축임을 직접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C저축은행은 이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오히려 영업력 강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예금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부실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며 “부실을 털고 나면 안정을 되찾으면서 저축은행의 감정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불안으로 인한 예금인출 사태는 모두에게 불행하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예금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으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에 이어 22일에는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지역을 방문해 고객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다.

예금자들을 달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내놨다. 통상 영업정지 3주 후부터 지급하던 가시급금을 2주 후로 앞당겼다. 또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은행·기업은행·부산은행 등 4개 은행을 통해 조기에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하고, 가시급금 지급 이후 추가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 담보대출의 한도를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베풀어라

흉년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배려하라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중에서 -

당신에게 배웁니다

400년 만석꾼 경주 최부잣집에 가면 특별한 가훈을 만나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고 높은 벼슬을 얻기보다

이웃을 위해 베풀고, 함께 나누기 위해 힘쓰라는 삶의 철학!

이름다운 전통이 된 그 가르침 앞에서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을 배우게 됩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